

목회를 하다보면(13)

장 의 성(목사, 익산 제자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임지 선택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 40대 초반 단독목회를 나갈 때 겪은 일이다. 서울에서 부목사를 하던 중 담임목사로 나갈 나이는 되었고 해서 중소도시 어느 한 교회에 이력서를 보냈다. 그랬더니 며칠 후 전화가 걸려 왔는데 100년 전통의 교회로 지금은 100여명의 교인이 조립식 건물에서 13억 짜리 교회 건물을 짓고 있다고 경상도 억양에 속사포로 말하길래 나는 혹시 분쟁으로 갈라져 나온 교회가 아니냐며 정중하게 고사했다. 그러나 전화를 한 장로님이 한 번만 와 보라는 간청을 끈질기게 하기에 하는 수 없이 허락하고 며칠 후 방문하였다.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를 마친 후 장로님 8명이 나에게 말했다. 어떤 장로님은 50통 되는 이력서 가운데 목사님의 이력서가 제일 먼저 뽑혀 나왔으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를 않나, 어떤 장로님은 자기네 교회는 100년 역사에 원로목사님을 한 번도 배출 못한 것이 가슴에 한이 된다고 꼭 원로목사가 될 각오로 자기네 교회에 와 달라는 등, 정말 목사로서는 혹할 만한 말씀만 골라 가면서 청빙을 했다. 그때 내 나이도 만 40이 되던 해라 남들 고생하는 개척교회와 교회 건축이라는 두 가지 사명을 동시에 감당해 보자는 호기가 작동했다. 그 교회는 개척분립한지 이제 2년 된

교회였다.

그리하여 8톤짜리 화물차 두 대에 이삿짐을 가득 싣고 이사를 왔다. 이사 온 직후 친지들이 사택에 전화를 했더니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더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알고 봤더니 사택이 따로 또 있는데 거기에는 전임자 목사님이 아직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놀라서 다음날 찾아가 뵈고 전혀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하고 왔노라고 죄송하다며 인사를 청했다. 알고 보니 그 교회는 담임목사가 부목사와 관계가 좋지 못해 교회는 동반사퇴라는 카드로 목사를 사임시킨 교회였고, 부목사는 사임은 했지만 후임이 올 동안 교회를 지키기로 한 상태였다.

부임 후 한 두 달이 지났을까? 서기 장로님이 하루는 목사님 위임식을 노회에 청원해야 하는데 부목사를 계속 두면 안 되겠느냐는 조건을 내비쳤다. 알고 보니 그 교회 장로들은 애당초 그 부목사를 내보낼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결국 전임 목사를 내보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동반사퇴라는 형식을 취했다가 후임이 오면 후임을 통해 부목사를 재청빙하고자 하는 의도를 장로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아! 그때 나는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신학교에서 목회학 그 어떤 교과서에도 다루지 않았던 문제들이 마치 고구마 덩굴에 고구마 매달려 나오듯이 줄줄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 후 그 부목사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교회 실세들과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불과 일 년 삼 개월 만에 일방적으로 목사해임결정 통고서를 받아 보게 되었다. 그 통고서에 의하면 목사님은 무언고 좋고, 무언고 좋고, 다 좋지만 자기들과 정서가 맞지 않아서 해임을 통고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목사 사임은 자의 사임과 권고 사임 두 가지가 있는데 권고 사임은 당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노회가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임지가 나올 때까지 사임은 하지 않겠노라 선언했다.

그런데 그때 가장 곤란했던 것은 강단 설교였다. 주변 목사님들은 하나 같이 강단 설교는 계속 하라고 조언했다. 그런데 당시 그 교회는 건축비가 10억으로 한 달 이자만 매달 8백만 원 이상씩 지출하고 있었다. IMF 사태 직전이라 은행 이자율이 13%를 치솟는데 은행에만 7억을 빚지고

있었다. 교회 예산 1억으로는 이자만 갚기에도 바빴다. 그런데 그 교회는 내가 부임하기 전부터 건축현금을 따로 하지 않기로 당회가 정책으로 결정한 바 있었다. 왜냐고 물으니 교회분립 당시 건축은 장로님들이 책임지기로 공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13억 교회 공사를 하는데 작정현금까지 합쳐서 3억 원으로 공사를 시작했으니 10억은 고스란히 빚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러니 내가 설교를 강행하면 10억 빚을 다 떠맡겠다는 무언의 의사표시가 되기에 나는 부득불 설교 사역을 중단하였다. 설교를 안 하니 무노동 무임금이라며 생활비는 전혀 없었다. 때마침 IMF로 인해 수많은 실직자, 해직자들이 대량 배출되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나 역시 같은 고통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 후 나는 일 년이란 세월을 안식년이라고 생각하고 꼼짝없이 백수로 지내다가 간신히 후임지를 정할 수 있었다.

역지사지(易地思之)와 황금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यो 선지자니라”(마 7:12)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은 구약의 결론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로 정리하셨다. 이 말을 동양적인 표현으로 환원하면 역지사지(易地思之), 즉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고부간의 갈등도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이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두 여자의 사이는 훨씬 좋아질 것이다.

인류의 멸망은 분쟁에 있고 분쟁은 대립에 있으며 대립은 갈등에서 시작한다고 볼 때 갈등은 분쟁의 씨앗이요 멸망의 시작이다. 그런데 모든 갈등과 대립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역지사지의 정신이 희박해서 비롯된 것이다.

종교적인 갈등과 대립 역시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 신앙이란 절대적인 신념체계이기에 내가 믿는 것이 최고요 최선이다. 신앙의 대상은 절대자이기에 신앙 자체는 절대적이다. 그렇다면 내 신앙이 소중하듯이 다른 신앙 역시 그 나름대로 소중하지 않을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만일 내 종교 외에 다른 종교를 인정한다면 그건 우상숭배요 배교에 해당한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과연 그럴까?

만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노방전도에 열심을 냈어야 했다. 그러나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해외 선교를 전혀 하지 않았다. 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 같이 국내에서 활동하였지 요나와 같이 외국에 나가지 않았던 것일까? 그것은 내 나라 백성도 제대로 믿지 않는 하나님을 다른 나라 백성에게 전파해 보았자 소용이 없기 때문인지 모른다. “너나 잘 하세요”.

실상 이스라엘 역사는 반역과 패역의 역사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선택하여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이방 잡신에 더 매력을 느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참된 선지자에게는 해외선교에 앞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자체가 선교요 전도의 효과를 갖는다.

우리는 최근 천주교와 개신교의 교세확장, 전도 결과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게 된다. 천주교는 개신교처럼 요란하게 전도하는 법이 없지만 김수환 추기경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다. 불교 역시

법정 스님 한 사람의 죽음이후 엄청난 포교 효과를 보고 있다. 반면 개신교는 뭔가? 총동원 전도라는 전투적 전도운동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년 연례행사처럼 벌이지만 성장률은 제로에서 이제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일부 대형교회는 수평이동으로 재미를 보지만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일부 대형교회들이 사고 한번 칠 때마다 추풍낙엽처럼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불교로 개종하는 숫자가 장난이 아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중국 사람이 번다더니 개신교가 기껏 전도하면 천주교가 재미 본다. 왜 그런가? 삶이 뒷받침 안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초신자들은 대부분 순진하지만 교회 경륜이 오래 된 사람일수록 영악한 면이 보인다. 초신자들이 교회 문제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거의 다 중직자들이 교회 문제 원인이고 그 원인 제공자는 교역자, 성직자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제 타종교에 대한 우월성을 교리로서가 아니라 생활로서 입증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실을 다져야 하는데 개신교는 체질적으로 물량주의로 승부를 내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다. 즉 교회성장이 목회자의 성적표이고 성적을 잘 내기 위해서는 핑 잡는 것이 매라는 마키아벨리즘 사고방식이 이미 팽배해져 있다. 대형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단이 목적을 우선한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메카니즘이다. 승자독식, 다다익선,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적자생존, 양육강식,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 아니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農